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류 기 주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The Form of Dress related to the Ideal Beauty of Body

—from Ancient Egypt to the Romantic period—

Ki-Joo Ryu and Min-Ja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5.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 Beauty of Body and the Form of Dress, and to analyze its historical perspective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the Ideal Beauty of Body, the definition of Dress Form, and the method and system to clarify Dress Form were depicted. Based on this frame work, the Form of Dress related to the Ideal Beauty of Body was described historically. For this purpose, documentary research were conducted and representative photography and paintings were used. The analysis was limited to the female one-piece dress from Ancient Egypt, Greece, Rome, Byzantine, Gothic, Renaissance, Baroque, Rococo, Naoclassicism, and to Romanticis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deal Beauty of Body was found to be different throughout history and to be intimately linked with fashionable dress.
2. The Form of Dress consisted of four basic components: The form of body itself, the form of clothing itself, the method of wear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clothing.
3. The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body form were body structure, body type, body proportion, posture, and movement. Clothing form was generally classified into flat type (unstructured type) and three dementional type (structured type); flat type was subclassified into draped type and tunic type. The method of wearing was classified into attached type, tying-up type, wrap-around type, pull-over type, open type and plastistic typ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clothing after wearing was generally classified into body priority type and clothing priority type. The clothing priority type was further divided into body exaggeration type and body concealment type; Body exaggeration type was further divided into upward type,

downward type, forward type, backward type, right type and constriction type.

4. The pursuit of venus coelestis, metaphysical body part, ectomorphic body type, flat type clothing, body priority type; the pursuit of Venus Naturalis, physical body part, endomorphic body type, three dementional type clothing, clothing priority type proved to be closely related respectively by the historical study on the Ideal Beauty of Body and the Form of Dress.

I. 서 론

일반 조형예술 즉 회화나 조각, 건축등은 정태적인 미를 가질 뿐이지만 복식조형은 인체에 착장되며 인체의 동작에 따라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 동태미를 갖는다¹⁾.

따라서 복식조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체의 형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을 어떻게 복식형태로 표현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형예술들과 다르게 특히 인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복식의 형태에 대하여 미학적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식이 조형예술이라고 할 때 그 작품의 표현방식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식에는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내용이 있는데²⁾ 복식에서 이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복식의 형태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여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한다. 이때 복식의 형태를 살피는 것이 복식의 양식 중 형식을 파악하는 한 방법이고,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복식의 양식중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복식의 형태가 어떻게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포용하여 나타났는가를 살피는 연구는 복식형태의 변화에 관한 근본적 요인을 밝혀 줄 것이며 오늘날 복식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미래의 복식형태에 대해 예측과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복식의 형태와의 관계를 밝히고 각 시대별로 그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인체미와 여성의 원피스 스타일의 겉옷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문헌자료와 그림, 사진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적고찰은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로 분석범위를 제한하였다.

II. 인체에 대한 미의식

서구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일치된 개념에서 언제나 인체는 미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왔다. 즉, 인체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감각적 본성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미적본능에 의한 이상화로서 묘사되었던 것이다³⁾. 따라서 그시대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체의 표현의식을 살핌으로서 한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알아 볼수 있다.

복식에서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대해 Hollander는, 인체의 이상화된 이미지는 각 시대마다 인체를 재구성하게 하는 당대 유행복식에 표출된다고 하였다⁴⁾. 따라서 유행의 변화에 따라 복식을 보는 관점이 변하고 나아가 인체를 보는 관점까지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디자인의 의복을 입었을때 그들의 인체에 대한 인식은 한 형상으로 주조되며 의복을 통해 정제되어진다는 것이다⁵⁾. 변함없이 지속된 인체의 형태이지만 각 시대마다 그 인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의식을 키워왔으며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밝히는 일은 이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 당시의 복식의 형태미를 파악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각 시대의 구체적인 인체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인체의 일반적 특성을 밝혀 이들을 기준으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인체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체구조, 체형, 인체비례, 자세,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인체구조

각 인종마다 인체의 구성요소와 구성형태들이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인체의 구조는 구간부를 중심으로 한 세로방향의 타원형이다⁶⁾. 인체 구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나, 미학적 관점에서 복식과의 중요한 미적관계가 있는 인체부위를 중심으로 본 연

구에서는 머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다리 이상 8부위로 인체구조를 구분하고자 한다.

2. 체형 (Body Build)

오늘날의 여성인체에 대한 선호도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몸무게와 신장의 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전반적인 체형이 인체의 매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⁷⁾.

Hillestad는 복식과 인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내배엽(endomorphic)성분, 중배엽의(mesomorphic)성분, 외배엽의(ectomorphic) 성분으로 나눈 Sheldon의 3가지 체형분류에 2개의 조합을 더 추가하여 마른형(ectomorphic)-마르고 근육형(ecto-mesomorphic)-근육형(mesomorphic)-비만하고 근육형(endomesomorphic)-비만형(endomorphic)으로 분류하였다⁹⁾.

본 연구에서는 Hillestad의 모델을 체형분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3. 인체비례

인체비례란 미적비례의 하나로 인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인체 부위가 어떤 비례로 되어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로 길이가 중심이고 양의 비례는 무시되고 있다¹⁰⁾. 인체의 비례는 시대, 민족, 개인등의 취미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므로 비례의 절대적인 수치는 있을 수 없고 오직 비교적인 이상적인 수치만 있을 뿐이다¹¹⁾.

4. 자 세

복식과 관련된 인체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세를 포함시켜 고려하여야 하는데¹²⁾ 개인의 자세가 인체와 복식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권내에서 가지는 그 사회의 독특한 자세의 기준도 복식의 미에 상당형 영향을 미친다¹³⁾.

5. 움직임

인체의 움직임은 복식의 미적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강조는 특히 현대복식의 특성들 중 하나로 들 수 있으므로 복식에 있어 인체의 움직임은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인체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시한 인체구조, 체형, 인체비례, 자세, 움직임은 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므로 인체의 형태를 분석할 때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자세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III. 복식의 형태

복식의 형태는 조형예술로서의 복식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복식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복식사 연구의 양식적 접근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¹⁵⁾. 그러므로 복식의 연구에서 복식의 형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복식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파악하여 복식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형태의 분석을 구조주의적 방법론¹⁶⁾에 기초를 두어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며 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기본전제로 한다.

하나, 복식형태분석은,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와 요소들의 상관성, 그리고 이에 부여된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둘, 복식형태분석은, 형태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셋, 복식형태분석은, 복식의 외적요소인 자연환경적 요소와 사회, 경제, 기술등의 인위적 요소등과 관련시키지 않으며, 각 시대의 복식형태가 시간적으로 진화된 인과관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시기의 인간의 미의식이 유기적으로 표출될 형식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1. 복식의 형태분류

小川安郎은 1차조형을 통해 재료상태인 옷감으로 부터 의복이 형성되고 이 의복은 다시 2차형성을 거쳐 인간이 착용한 형태인 복장(Attire)이 구성된다고 하여 1차복식조형 그 자체와 인체에 착용된 상태인 2차복식조형과의 구별을 뚜렷이 하고 있다¹⁷⁾.



1차복식조형+인체=2차복식조형(복식 : Dress)

이와같이 1차복식조형과 2차복식조형을 구분한 것은 조형예술 중에서 복식만이 갖는 인체와의 연관성과 함께 복식형태의 구성 요소들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복식형태의 구성요소들은 (1) 인체의 형태 (2) 1차복식조형의 형태 (3) 착장방식이고, 이들 구성요소들이 상호연관성있게 조직된 결과는 (4)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1) 1차복식조형의 형태에 대한 분류

1차복식조형의 형태는 재료의 상태에서 1차성형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재료의 종류, 재단의 방법, 봉제의 방법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복식조형이 인체의 입체적 형태를 얼마나 인식하고 성형되었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크게 인체의 입체를 인식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만들어진 평면형(flat type)과 인체의 입체를 인식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입체형(tailored type)으로 나누었다. 먼저 평면형은 의복내부에 구조적인 선¹⁸⁾이 없이 평면적이어서 재단할 때 앞과 뒤의 모양이 거의 같은 형이며 이러한 평면형의 1차복식조형에는 한장의 천을 그대로 혹은 반으로 접어서 봉제한 드레이프트형(draped type, 한장형)과 한장혹은 두장의 천을 T자형으로 봉제한 튜닉형(tunic type, 두장형)으로 다시 나눌수 있다. 입체형은 인체의 입체적인 형태대로 성형하기 위해 인체의 입체형에 따라 재단, 봉제하여 1차복식조형 내부에 구조선이 생기도록 한 것으로 1차복식조형의 앞과 뒤의 모양이 다른 형이다.

2) 착장방식에 대한 분류

착장방식은 인체위에 1차복식조형을 입는 방법으로 착장방향, 고정방식, 착장방법을 포함한다¹⁹⁾.

본 연구에서는 착장방식에 대해 다음 6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재료를 인체의 일부에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착장방식인 붙이는 형(attached type), 1차복식조형을 인체의 목, 팔, 허리, 다리등에 둘러매는 착장방식인 매는 형(tying-up type), 주로 어깨를 기점으로 하여 1차복식조형을 인체의 온몸에 감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착장방식인 감는형(wrap-around type), 평면형 의복의 목부분 개구를 통해 머리를 거쳐 어깨에 느슨하게 걸치는 착장방식인 관두형(pull-over type), 평면형 1차복식조형의 앞(옆이나 뒤)트임을 통해 입은뒤 인체 맞도록 트임을 끝이나 단추로 여미는 착장방식인 전개형(open type), 입체형 1차복식조형을 인체에 보다 잘 맞게 입기 위해 인체를 버팀대등으로 정리한 뒤 상하분리하여 착장하는 방식인 조형형(plasticity type)이 그것이다.

3)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에 대한 분류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는 인체위에 1차복식조형을 착장한 후 그 관계에 대해 인지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인체우선형(body priority type)과 1차복식조형 우선형(clothing priority type)으로 나누고자 한다. 인체우선형은 1차복식조형이 다만 인체의 자연스런 형태를 드러내고자 착용 하였을 때로서 인체의 형태가 더 강조된 상태이며, 1차복식조형 우선형은 인체의 부분적 부위를 과장시키거나 축소시킴으로서 인체본래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1차복식조형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고자 착용하였을 때로서 인체의 형태보다 1차복식조형의 형태가 더 강조된 상태이다. 그리고 1차복식조형 우선형에는 다시 인체의 형태를 과장한 인체과장형(body exaggeration type)과 인체의 형태를 은폐한 인체은폐형(body concealment type)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인체과장형은 인체를 과장한 방향에 따라 상방형(upward type), 하방형(downward type), 전방형(forward type), 후방형(backward type), 좌우형(right-left type), 축소형(constriction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까지 복식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인체의 형태, 1차복식조형의 형태, 착장방식,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인 착장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그 분류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정리하여 복식의 형태분류를 위한 분류기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IV.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의 사적고찰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복식의 형태개념을 실제로 적용하여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

각 시대에는 그들 나름대로 인체에 대한 지배적인 미의식이 있었다. 인체를 보는 그들의 관점은 바로 이상적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표현한 인체의 묘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1> 복식 형태의 구성요소와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류체계

복식형태의 구성요소	인체의 형태	인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머리)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다리
		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른형 마르고 근육형 근육형 비만하고 근육형 비만형
		인체비례	
		자세	
		움직임	
1차복식조형 형태	평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레이프트형 튜닝형 	
복식형태의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착장 방식	입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능형 매는형 감는형 관두형 전개형 조형형 	
복식형태의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착장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의 관계	1차복식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형 인체 과장형 상방형 하방형 전방형 후방형 좌우형 축소형
		인체 은폐형	인체 우선형

고대 이집트시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인체를 다산이나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²⁰⁾. 그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불변하는 인체를 숭배하였으며²¹⁾, 전체적인 인체의 모습보다 인체 각 부위의 구조를 우선으로 인식하였다²²⁾.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²³⁾. Clark에 의

하면 여성의 누드에는 여성의 번식력을 강조한 ‘자연의 비너스(Venus Naturalis)’와 이데아를 향해 이상화된 ‘천상의 비너스(Venus Coelestis)’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사회에서 여성은 문화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연이란 생명의 근원이며 번식력이 있으며, 본능적이며 이는 곧 여자와 비유된다. 특히 여성의 생물학적 과정인 월경이나 아이를 갖거나 젖을 먹일때 더욱 여성은 생산적인 과정에 있어 확실한 역할이 배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란 자연의 가치를 절하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상태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정신적인 것으로 여성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Kenneth Clark²⁴⁾은 이러한 누드에 대한 자연/물질/여성의 이미지를 ‘자연의 비너스’로서 문화/정신/남성의 이미지를 ‘천상의 비너스’로서, 명명하며 분리된 성의 개념으로서 간주하지 않고 예술의 표현에 있어 시대, 작가에 따라 여성 누드에 대한 이상화된 미의식의 개념의 교차를 그리스시대부터 현대 회화, 조각을 통하여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그중 인체가 저속하기를 그치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주는 천상의 비너스가 되기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인체의 구성요소보다는 각 부분의 조화적 비례를 중요시 여겼다²⁴⁾.

비잔틴시대에는 종교적 위력앞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체는 무시되었으며²⁵⁾ 완벽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 일종의 결핍의 감정을 인체를 통해 설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²⁶⁾ 추상적인 선적원리에 의한 평면성으로 묘사되었다²⁷⁾.

고딕시대에는 인체에 대해, 누드의 자연성(nuditas naturalis), 누드의 세속성(nuditas temporalis), 누드의 고결성(nuditas virtualis), 누드의 죄악성(nuditas criminalis)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²⁸⁾. 그리고 이 시대에는 비잔틴시대의 신비주의와는 달리 인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도식화하여 묘사하였으며²⁹⁾ 이는 근대에 인체를 입체적으로 인식하게된 출발점 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들여 인체를 정직하게 받아들였다³⁰⁾. 로마시대처럼 인체를 이상화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관능에 몰입된 현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³¹⁾. 이 시대의 인체미의 기준은 중용이었

는데 자연의 이상화와 인간적 아름다움 사이의 조화로움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³²⁾.

바로크시대에는 방탕한 정신상태와 파괴적인 향락주의가 범람하면서 인체가 점차 세속화되어갔다³³⁾. 인체에 대한 에로티시즘은 고통과 압박, 상처받기 쉬움등으로 표현되었으며³⁴⁾ 당시 여성들은 이러한 메조키스트적 경향을 즐겼고³⁵⁾ 이러한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복식의 이용에 대해 Rudofsky는 의복과 자기만족의 악용이라고 하였다³⁶⁾.

로코코시대에는 지극히 사치스런 귀족 취미의 관능을 추구하여 선정적이면서 예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으며³⁷⁾, 관능적인 욕망이 미적으로 잘 조절된 보호하고 싶은 귀여운 여자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³⁸⁾.

고전주의시대에는 루소의 자연사상이 인체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³⁹⁾, 욕망의 근원인 인체는 신이 부여한 것이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재되어서는 안되고 본래 모습대로 두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여성의 인체에서 만족스런 기하학적 형태와 관능적인 감각을 찾아냈기 때문⁴⁰⁾에 인위적인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해방된 자유방임의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다.

낭만주의시대에는 근대시민계급의 이념을 담은 자연스럽고 근대적인 욕망을 인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⁴¹⁾ 인체에 대해 찬상과 더불어 감각적인 세속의 미를 모두 갖춘 비너스의 영광을 재부여하고자 하였다⁴²⁾.

2. 각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분석

이상적으로 여긴 인체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앞에서 살펴본 인체의 일반적 특성중 인체구조와 체형, 인체비례를 중심으로 각 시대의 전체적인 이상적 인체형태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대 이집트시대에는 가슴과 배를 강조하여 노출시키거나 꼭 끼는 의복내지는 투명하게 비치는 의복으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위를 드러내었다. 또한 농경생활에서의 노동중시와 불변하는 인체에 대한 동경으로 여성들의 이상적인 체형은 마르고 근육형이었다. 그들의 인체비례는 대체로 6.5등신이었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균형잡힌 전체적 비례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한 부위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또한 남성위주의 힘차고 영웅적인 이미지를 중시한 결과 전형적인 운동가 타입의 근육형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 시대에는 8등신이 이상적인 인체비례였다.

비잔틴시대에는 의복에 의해 인체를 전체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에 특정 인체부위의 강조는 없었다. 관념화된 마른형을 이상적으로 여겨 육체미의 형상을 철저히 근절시켰으며 인체 대한 관념적 해석으로 전형적이고 통일적인 인체비례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⁴³⁾.

고딕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큰 머리, 좁은어깨, 빈약한 가슴, 높은 허리, 둥글고 볼록한 배, 널찍한 엉덩이, 긴다리도 대표될 수 있으며⁴⁴⁾ 배의 곡선이 특히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체의 세속성 강조와 함께 큰 머리를 강조하여 인체의 고결성을 상징적으로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역시 마른형을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대체로 이 시대의 인체비례는 다소 길게 연장되어 표현되었으나 머리를 크게 묘사하였으므로 8.5등신 정도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상체의 확실한 인체곡선의 표현보다는 빈약하고 높은 가슴, 가슴둘레와 거의 같은 허리둘레, 긴 배로 원통형의 거의 굴곡이 없는 몸통을 이상적으로 여겼는데⁴⁵⁾, 이는 자연의 이상화와 더불어 인간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의 창조적 관능에 몰입한 결과 내린 형이상학적 인체부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부위 중 목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시대의 영향을 받아 형이상학적 부위로 여겨 은폐하여 강조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인 인체의 강조인 동시에 그리스인의 이상미를 추구하고자 한 중용의 미를 실현한 결과이다. 이 시대의 이상적인 체형은 아름답고 풍만한 성숙함에서 현세적인 관능을 느꼈으므로 비만하고 근육형이었다. 이 시대 인체 비례는 그리스 로마시대와 같은 8등신이다.

바로크시대와 로코코시대에는 성적요소가 수용될 수 있는 일상적인 감각을 우선 강조하여 허리선이 적당히 올라가 짧아진 허리길이, 크고 둥근 가슴을 강조하였으며 엉덩이 돌출도 강조 되어 17C에는 이것이 확대표현되어 복식에서의 버슬이 등장하였다. 이 시대에는 향락주의에 의한 세속적 욕망의 추구로 비만형이 이상적이었다. 인체비례는 실제적인 인체의 극적변화를 추구하였으므로 인체 본래 모습대로인 7등신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로코코시대에는 특히 짧은 다리의 유아적 이미지를 선호하여 상당히 단축된 인체비례인 6등신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고전주의시대에는 긴 몸통에 두개의 잘 다듬어진 반구형태의 크고 오뚝한 가슴과 큰 젖꼭지만을 강조하였는데⁴⁶⁾, 이는 형이상학적 인체 부위를 강조한 그리스로

마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훨씬 비치는 옷감을 통해 긴 다리의 곡선을 비쳐서 노출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의 대상으로 인체를 표현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 시대에는 근대적 욕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근육형이 이상형이었으며 이 시대에는 그리이스의 전체적인 체비례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특히 가슴선 아래의 부위를 길어보이게 하는 것이 선호되었기 때문에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는 8.5등신 정도까지 연장되었다.

낭만주의시대에는 앞으로 돌출한 큰 가슴, 가는 허리, 뒤로 튀어나온 큰 엉덩이의 강조로 측면에서 극도로 변형된 인체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따뜻하고 포근한 연성의 풍만함을 선호하여 철저한 관능미의 비만형이 이상적인 체형이었으며 인체비례는 실제 그대로의 7.5등신 정도였다. -

3. 각 시대의 1차복식조형의 형태분석

1차복식조형의 형태는 크게 평면형과 입체형으로 분류되며 평면형에는 다시 드레이프트형(한장형)과 튜닉형(한장 혹은 두장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준으로 각 시대의 1차복식조형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이집트시대에는 천을 짜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넓은 베를로 짠 옷감을 재단이나 봉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⁴⁷⁾인 드레이프트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다.

그리이스 로마시대에는 직사각형의 옷감을 재단이나 봉재를 하지 않은 채 핀으로 고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드레이프트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다. 드레이프트형의 1차복식조형은 입체형의 그것에 비해 인체에 꼭 맞게 만드는 기술적 능력이 결여된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1차복식조형의 형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⁴⁸⁾ 인체의 미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잔틴시대에는 두장의 사각형천을 목과 팔을 위한 구멍을 남기고 봉재하거나 특히 인체의 팔을 의식하여 소매를 따로 재단하여 봉재한 튜닉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다.

고딕시대에는 재단과 봉재기술이 발달하고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들였으며 십자군 전쟁이후 종교, 인체에 대한 개념이 변함에 따라 인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⁴⁹⁾, 트임을 만들어 단추나 끈으로 인체에 밀착시켜 여미거나 입체재단 방식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고어

의 사용법⁵⁰⁾이 발전되는등 입체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할수 있으나, 입체를 유지시키는 구조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두장의 앞과 뒤의 모양이 같은 평면형의 튜닉형인 1차복식조형을 만들어었다고 볼수 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인체의 둥글고 입체적인 형태로 1차복식조형을 성형하기 위해 그 내부를 여러 구조선으로 재단하여 봉재하였으며 상-하가 분리되어 재단된⁵¹⁾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으므로 콜셋(Corset)이나 파아팅게일(farthingale)등으로 왜곡되게 인체의 입체를 표현하였다.

바로크와 로코코시대에도 인체의 입체를 표현할수 있는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위해 그 내부에 여러조각을 잇거나 구조적인 라인을 이용하였으며 이 시대에 사용되었던 콜셋(Corset)과 빠니에(Panier)등의 버팀대는 이러한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전주의시대에는 그리이스 로마시대처럼 인체의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내부구조선이 없고 앞과 뒤의 모양이 같은 튜닉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다. 단지 상하를 따로 재단한 뒤 함께 봉재하거나 퍼프소매등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한점이 앞서 튜닉형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던 시대와 다른 점이다.

낭만주의시대에는 재단과 봉재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다아트, 심, 솔기등 내부의 구조적 라인을 많이 개발하였으며⁵²⁾ 앞과 뒤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만들었다.

4. 각 시대의 1차복식조형의 착장방식 분석

착장방식은 1차복식조형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붙이는형, 매는형, 감는형, 관두형, 전개형, 조형형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각 시대의 착장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이집트시대에는 드레이프트형의 로인크로서(loincloth)를 허리에 고정시키는 매는형과 셰스 스킵트(Sheath Skirt)나 칼라시리스(Kalasisiris)를 머리를 통해 위로 입는 관두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이스 로마시대에는 취톤(Chiton), 히마티온(himation), 토가(toga)등을 온 몸에 감은 뒤 고정시키는 감는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다.

비잔틴 시대에는 달마티카(dalmatica)와 같은 풍성

한 소매가 달리고 앞트임이 없는 간단한 T자형의 튜닉형 1차복식조형을 머리를 통해 입는 관두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다.

고딕시대에는 인체의 곡선을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트임을 내어 단추나 끈등으로 밀착시켜 입는 전개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셔양복식의 입체화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⁵⁹⁾.

르네상스시대에는 버팀대등을 이용하여 체형을 조형하여 입는 조형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다.

바로코시대와 로코코시대에도 역시 조형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상하가 완전히 따로 분리재단 봉제하여 착장하기 시작하였다.

고전주의시대에는 인체부위 강조보다는 전체적인 곡선을 중요시 여겨 등장했던 튜닉형 1차복식조형을 관두형으로 착장하였다.

낭만주의시대에는 다시 내부구조선이 들어가고 상하가 분리되어 재단된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버팀대로 조형하여 입는 조형형의 착장방식을 이용하였다.

5. 각 시대의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 분석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는 크게 인체우선형과 1차복식조형우선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1차복식조형우선형에는 다시 인체과장형과 인체은폐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인체과장형에는 상방형, 하방형, 전방형, 후방형, 좌우형, 축소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 분류기준에 따라 시대별로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 이집트시대에는 인체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인체우선형의 관계를 가졌다.

그리스 로마시대도 인체를 이상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인체우선형의 관계를 가졌다.

비잔틴시대에는 인체를 무시하였으므로 인체은폐형의 관계를 가졌다. 고딕시대에는 비잔틴시대의 인체은폐형에서 르네상스시대의 인체강조형이라는 극단적 반전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여 고딕전기에는 인체은폐형이었으나 고딕후기에는 배의 전면을 향한 전방형, 스킷트의 긴 트레인(train)으로 뒤를 강조한 후방형, 에넵(hennin)으로 하늘을 향한 공간을 강조한 상방형, 플렌느(Poulaine)로 발끝을 뾰족하게 연장시킨 하방형등 인체과장형이 나타났다.

르네상스시대와 바로코, 로코코시대에는 큰 가슴강조와 스토마커(Stomacher)로 인체전면의 길이를 강조한 전방형, 엉덩이의 좌우를 극대화한 좌우형, 가는 허리를 콜셋(Corset)으로 강조한 축소형등 인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한 1차복식조형의 형태가 중심된 1차복식조형 우선형이 나타났다.

고전주의시대에는 인체의 자연스럽게 해방된 형태를 존중하여 인체가 우선인 인체우선형의 관계를 가졌다.

낭만주의시대에는 큰가슴을 강조한 전방형, 크리놀린(Crinoline)으로 엉덩이의 뒤틀기를 강조한 후방형, 가는허리를 강조한 축소형으로 인체를 강조한 1차복식조형이 우선인 관계였다.

6.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의 형태분석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그 시대에 특히 강조하는 인체구조와 이상적인 체형, 이상적인 인체비례를 낳으며 그 미의식에 따라 1차복식조형의 형태와 착장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의도한 인체와 1차복식조형의 관계가 완성된다. 이제까지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의 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집트시대에는 여성의 인체를 풍요와 다산이 상징으로 여겼으므로 출산과 관련이 있는 가슴과 배를 중요시 하였으며 마르고 근육형의 6.5등신을 이상인 인체로 보았다. 드레이프트형의 1차복식조형을 느슨하게 매는형이나 관두형으로 착장하여 인체우선형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인체를 이데아가 반영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인체의 부위강조보다는 전체적 조화를 갖춘 비례를 중요시 하여 건강한 근육형의 8 등신을 이상적인 인체로 보았다. 인체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드레이프트형 1차복식조형을 감는형으로 착장하여 인체우선형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예가 되었다.

비잔틴시대에는 종교의 위력앞에 인체는 무시되어 죄의 상징으로 마른형을 추구하였으며 평면형의 튜닉형 1차복식조형을 머리를 통해 느슨하게 입는 관두형의 착장방식으로 인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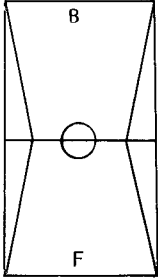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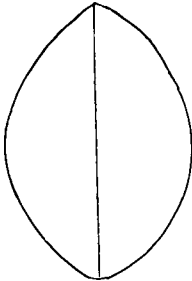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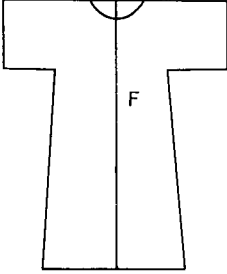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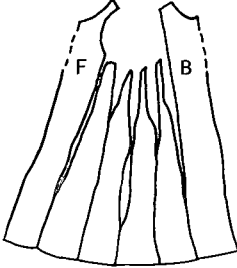

고딕시대에는 인체에 대해 자연성, 고결성, 죄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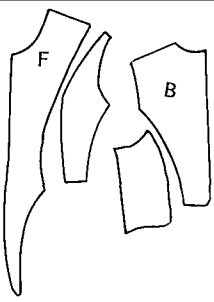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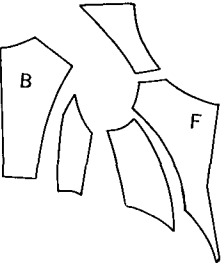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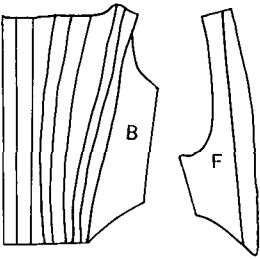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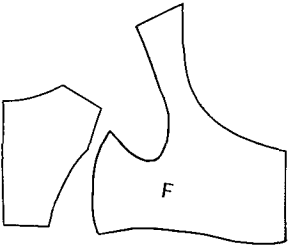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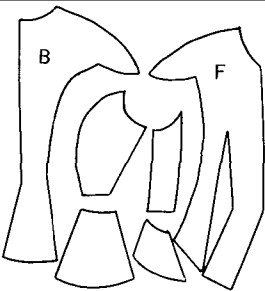

함께 세속성을 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인체를 전체적 비례보다 부위별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키 크고 배의 크기를 강조하고 머리가 큰 마른형을 추구하였다. 인체의 세속성 강조로 튜닉형 1차복식조형으로 트임을 내어 조여서 여미는 전개형 착장방식을 반

전시했으며 인체과장형을 향한 과도기로서 인체은폐형과 함께 인체의 방향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인체의 상, 하, 전, 후를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는 그리이스의 영향을 받은 자연의 이상화화 함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중용의 미를

<표 2> 각 시대의 인체와 1차복식조형의 패턴, 그리고 복식

	인 체 ¹	1차복식조형	복 식 ²
고대 이집트			
그리이스와 로마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고전주의			
낭만주의			

*1 : Clark의 Feminine Beauty⁵⁴⁾

*2 : Boucher의 20,000 Years of Fashion⁵⁵⁾

갖춘 현세적인 인체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형이하학적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비만하고 근육형인 인체의 8등신을 이상적으로 여겨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원하는 체형대로 인체를 조형한 조형형으로 착상한 뒤 배강조의 전방형, 엉덩이 강조한 좌우형, 상폐를 권 축소형의 방향성을 갖는 1차복식조형우선형의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바로코와 로코코시대에는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향락 추구가 절정을 이루어 비만형 여성의 형이하학적 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가는 허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조형형으로 착상하여 가슴을 강조한 전방형, 엉덩이의 뒤와 옆을 강조한 후방형과 좌우형, 가는허리를 조인 축소형, 과장된 머리장식에 의한 상방형으로 인체를 과장한 1차복식조형우선형의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고전주의시대에는 그리이스의 이상이 재현되어 인체의 전체적 비례를 각 부위보다 중요시 하였고 근육형의 매우 키가 큰 8.5등신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튜닉형의 평면형 1차복식조형을 선택하였으며 전개형으로 가슴을 여며 착상하여 인체가 더 우선이 되도록 하는 그리이스의 전통을 잇고자 하였다.

낭만주의시대에는 여성의 풍만한 감정이 포함되며, 천상과 자연의미를 함께 갖춘 인체를 이상적으로 여겼으므로 여성의 성적부위를 세련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만형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체형에다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을 조형형으로 착상하여 가슴을 강조한 전방형, 엉덩이를 강조한 후방형, 가는허리를 강조한 축소형으로 인체를 과장한 1차복식조형우선형의 관계를 가졌다.

이제까지 각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복식형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크게 천상의 인체미 추구하고 자연의 인체미 추구로 나눌때 고대 이집트, 그리이스 로마, 비잔틴, 고전주의 시대는 천상의 인체미를 추구하고,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시대는 자연의 인체미를 추구하였다.

둘째, 고딕시대에는 천상의 인체미 추구하고 자연의 인체미 추구사이의 전환기로서, 이 시대 후기부터는 인체에 대해 입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착상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도 인체우선형에서 1차복식조형우

선형이 나타나는 역사상 중요한 과도기였다.

세째, 그 시대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인체를 천상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그리이스 로마, 고딕, 고전주의), 강조한 인체부위가 가슴이상의 형이상학적 부위이며 인체의 전체적 비례를 중요시 하였고, 인체를 자연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강조한 인체부위가 가슴이하의 형이하학적 부위로 나타났다. 즉 허리를 극도로 쫓아서 축소시켰으며 엉덩이를 파딩게일이나 빠니에등으로 극대화시키므로써 더욱 형이하학적 인체부위를 강조시켰던 것이다.

네째,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인체를 천상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고대 이집트, 그리이스 로마, 비잔틴, 고딕, 고전주의), 체형이 근육형에서 마른형이었고, 인체를 자연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체형이 근육형보다 비만한 비만형이었다.

다섯째,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인체를 천상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고대 이집트, 그리이스 로마, 비잔틴, 고딕, 고전주의), 1차복식조형의 형태는 평면형이었고, 인체를 자연의 것으로 여겼을때는(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1차복식조형의 형태는 입체형이었다.

여섯째,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인체를 천상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 착상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의 관계는 인체우선형(고대 이집트, 그리이스 로마, 고전주의)이거나 인체은폐형(비잔틴)이었으며, 인체를 자연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1차복식조형우선형중 인체과정형이었다.

일곱째, 1차복식조형의 형태와 착상방식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드레이프트형의 1차복식조형일때는, 매는형이나 감는형, 관두형의 착상 방식이 가능하며, 튜닉형의 1차복식조형일때는, 관두형 또는 더 인체에 밀착시키기 위한 전개형의 착상방식을 이용했고,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일때는, 조형형의 착상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형태를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고자 했으며 복식형태 분석을 위해 복식형태의 구성요소로 (1) 인체의 형태, (2) 1차복식조형의 형태, (3) 착상방식으로, 요소들간의 상관성

은 (4) 착장 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과의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분류기준을 세웠다.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를 각 시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역사상 천상의 인체미 추구하고 자연의 인체미 추구는 서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두축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영향을 받는 그 시대에 강조한 인체구조, 체형, 1차복식조형의 형태, 착장후 인체와 1차복식조형의 관계도 형이상학적 부위와 형이하학적 부위, 마른형과, 비만형, 평면형과 입체형, 인체우선형과 1차복식조형우선형의 두 기점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즉 천상의 인체미를 추구한 시기에는 형이상학적 인체부위를 강조하였고 마른형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평면형의 1차복식조형으로 착장후 인체와의 관계가 인체우선형으로 나타나 서로 연관되었으며, 자연의 인체미를 추구한 시기에는 형이하학적 인체부위를 강조하였고 비만형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입체형의 1차복식조형으로 인체와의 관계에서 1차복식조형우선형의 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났다.

앞으로 복식형태의 분류기준에 대한 보다 새로운 유형을 세워 복식형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20C 이후 오늘날까지로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연구의 분석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小川安朗, 體系被腹學, (東京: 光生館, 1971), p. 98
- 2) Heinrich Wölflin, Translated by M. 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Y.: Dover Publication, Inc., 7th de., 1929), pp. 1-18.
- 3) 박용숙,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집문당, 1988), p. 18
- 4) Anne L.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1975, p. 85.
- 5) Anne L. Hollander, *Op. cit.*, p. 86.
- 6) 小川安朗, *Op. cit.*, p. 26.
- 7) Helen I. Douty & Evelyn L. Brannon,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s for Female Figure", *H.E.R.J.*, 13(2), (December 1984), pp. 122-137.
- 8) William H. Sheldon, The Varieties of Human Physique, (N.Y.: Harper & Brother, 1940), pp. 1-5, quoted in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p. 46.
- 9) R. Hillesta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6, pp. 117-125. quoted in Kim K. P. Johnson, "Impressions of Personality Based on Body Forms: An Application of Hillestad's Model of Appearance", *C.T.R.J.*, 8(4), (Summer 1990), pp. 34-39.
- 10)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p. 49.
- 11) 임법재, 인체비례론: 고대로부터 르네상스까지, (서울: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5), p. 9.
- 12) Farrell-Beck & Pouliot, "Pants Alteration by Graphic Somatometry Techniques", *H.E.R.J.*, 12(1), (September 1983), pp. 95-105.
- 13)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p. 109.
- 14) Ann L. Hollander, *Op. cit.*, p. 154.
- 15) 板倉壽郎, 服飾美學, 1989, 이현숙 역,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89), p. 83., 그리고 小川安朗, *Op. cit.*, p. 98
- 16) Claude Le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67). 구조주의란 심층의 보편적 정신구조를 폭로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로서 언어학자 소쉬르,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트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 17) 小川安朗, *Op. cit.*, p. 261.
- 18) M.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Y.: Prentice-Hall, Inc., 1980), pp. 281-282., 그리고 Eliner R. Nugent, "The Relationship of Fashion in Women's Dress to Selected Aspects of Social Change From 1850-1950",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62, p. 20.
- 19) 小川安朗, *Op. cit.*, p. 267.
- 20) 장명규, "예술로서 표현되는 성의 양태와 의미-미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pp. 5-7.
- 21) 계간미술, (서울: 중앙일보사), 9월호, 1982, p. 32.
- 22) 임법재, *Op. cit.*, p. 28.
- 23) Clark, Kenneth, The Nude, 이재호역, 누드의 미술사, 서울: 열화당, 1982, p. 98.
- 24) *Ibid.*, p. 97.
- 25) 임법재, *Op. cit.*, p. 40. (E. Panofsky의 분석).
- 26) 박용숙, *Op. cit.*, p. 25.
- 27) 임법재, *Op. cit.*, p. 38., 그리고 이운동, "누드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 1985, p. 25.
- 28) Gill Saunders, *The Nude: A new perspective*, (London: The Herbet Press, 1989), pp. 9-10.
- 29) 임범재, *Op. cit.*, p. 38.
- 30) 박용숙, *Op. cit.*, p. 30.
- 31) 이윤동, “nudism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p. 33.
- 32) 임범재, *Op. cit.*, p. 72.
- 33) 장명규, *Op. cit.*, p. 14.
- 34) 이윤동, *Op. cit.*, p. 48.
- 35) Mary L. Rosencranz, *Clothing Concept: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Y.: The Macmillan Company, 1972) p. 202.
- 36) Bernard Rudofsky, *Are Clothes Modern?*, (Chiago: Paul Theobald, 1947) p. 156.
- 37) 장명규, *Op. cit.*, p. 16.
- 38) Kenneth Clark, 이재호 역, *Op. cit.*, p. 201.
- 39) 박용숙, *Op. cit.*, p. 54.
- 40) 김봉구, *미술해부학*, (서울: 선일문화사, 1983), p. 9.
- 41) 박용숙, *Op. cit.*, p. 51.
- 42) 이윤동, *Op. cit.*, p. 64-65.
- 43) 임범재, *Op. cit.*, p. 40.
- 44) Kenneth Clark, 이재호 역, *Op. cit.*, pp. 388-390.
- 45) Anne L. Hollander, *Op. cit.*, pp. 100-105.
- 46) *Ibid.*, pp. 117-118, p. 123, p. 129
- 47)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의복: 제 2의 피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 58.
- 48) 박명희, “중세서양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 pp. 1-2.
- 49) *Ibid.*, p. 35.
- 50)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N.Y.: Dover Publications, Inc., 1963) p. 159.
- 51) Margot H. Hill & Peter A. Bucknell, *The Evolution of Fashion: Pattern and Cut from 1066-1930*, (Lond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68) p. 77.
- 52) *Ibid.*, p. 177.
- 53) 박명희, *Op. cit.*, p. 37-40.
- 54) Clark, Kenneth, *Feminine Beaut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80
- 55) Boucher, Francois, *20,000 Yea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